

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원장 채욱
2. 출장기간: 2011년 9월 5일부터 2011년 9월 9일까지(4박 5일)
3. 출장지: 중국 길림성 장춘시, 연길시
4. 출장목적: 국제회의(동북아 싱크탱크 포럼 및 한중재계회의) 참석, 기관 방문, 전문가 면담, 인적 네트워크 구축

II. 출장일정

일자	행선지	활동사항	비고
2011.9.5(월)	인천시-장춘시	출국	OZ 0303
	길림성 사회과학원	기관방문 및 간담회	
2011.9.6(화)	화토허호텔(華天賓館)	제7회 한중재계회의 참석	
	국제회의센터(國際會展中心)	제7회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 관람	
2011.9.7(수)	난후호텔(南湖賓館)	제2회 동북아 싱크탱크 포럼 참석	
	장춘시-연길시	이동	CZ 3605
2011.9.8(목)	연길시	지역 시찰	
	연변대학	전문가 간담회	
2011.9.9(금)	연길시-인천시	귀국	OZ 0352

III. 활동 내용

1. 길림성 사회과학원 방문 및 간담회

◎ 참석자

- 길림성 사회과학원 류야정(劉亞政) 부원장, 한반도연구소 장위산(張玉山) 소장, 한중푸(韓忠富) 부소장, 러시아연구소 저우웨이핑(周偉萍) 소장, K IEP 채욱 원장, 이종운 전문연구원, 김부용 부연구위원 등

◎ 내용

-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길림성 정부 산하의, 성(省) 내 유일의 종합적인 사회과학 연구기관으로, 중국의 지방 사회과학원 중 역사가 비교적 길고, 학과가 비교적 완비하며, 과학연구 역량이 비교적 풍부함.
-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연구원 175명, 행정인원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 만주철도 자료실, 한중 문화관 등의 문헌 자료실이 있음.
-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바 현재 한국, 일본, 조선, 미국, 러시아 등 10여 개 국가와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지난해에는 KIEP과 MOU를 체결하였음.
- 향후 KIEP과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경제·문화 교류를 심화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2. 제7회 한중 재계회의 참석

◎ 참석자

- 한국 측: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정병철 부회장, 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 포스코 최종태 사장, 북경현대자동차 노재만 사장,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 문재도 실장, KIEP 채욱 원장 등 23인.
- 중국 측: 길림성 당위원회 쑨정차이(孫政才) 서기, 왕루린(王儒林) 성장 중국기업연합회 왕중위(王忠禹) 회장, 중국제1자동차그룹 쉬셴핑(許憲平) 부총경리 등 17인.

◎ 내용

- 회의는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됨. 제1세션은 한중 상호 투자의 강화, 제2세션은 동북아지역 공동 발전 협력, 제3세션은 녹색분야 공동 협력 방안임. KIEP 채욱 원장은 제2세션에서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를 주제로 발표함.

-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가 한중 수교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기업들의 기회와 위험 요인,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효과적인 투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이 주요 내용임.

- 제2세션인 동북아지역 공동 발전 협력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측 포스코 최종태 사장의 발표가 있었고, 3세션인 녹색분야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GS 허용수 전무가 발표하였음.

3. 제7회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 관람

◎ 참석자

- 길림성 사회과학원 류야정(劉亞政) 부원장, 한반도연구소 장위산(張玉山) 소장, 한중푸(韓忠富) 부소장, 러시아연구소 저우웨이펑(周偉萍) 소장, KI EP 채욱 원장, 이종운 전문연구원, 김부용 부연구위원, 인천대학교 박제훈 교수, 배제대학교 고정식 교수, 경남발전연구원 이은진 원장 등.

◎ 내용

-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는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길림성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급 박람회임. 이는 중국정부가 동북아 각 나라와의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로서 2005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올해가 7번째임.
- 전시 구역은 중국 동북지역 12.5 진흥 기획 전시관, 홍콩 상품관, 대만 상품관, 동북아국가 상품관, 식품·의약품, 과학기술 및 전자정보관, 길림성 투자합작관 등으로 나뉘어져 있음.
- 동북아 무역투자박람회 관람객 수는 5만 명을 넘었고, 세계 500대기업 101여가 참여, 대외 상품무역 거래액은 6.65억 달러에 이름.

4. 제2회 동북아 싱크탱크 포럼 참석

◎ 참석자

- KIEP 원장, 배제대학교 교수 등 한국 측 6인;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등 북한 측 6인; 환일본해경제연구소 전무이사 등 일본 측 3인; 러시아과학원 극동분원 역사 및 민족연구소 일행 2인; 몽고과학원 부원장 등 몽고 측 3인; 길림성 인민정부 부성장, 길림성 사회과학원 등 중국 측 26인.

◎ 내용

-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포럼 진행. 제1세션은 동북아 각국 대표의 발표가 있었고, 제2세션은 “동북아 경제발전과 지역 협력”을 주제로 5인의 발표가 있었으며, 제3세션은 “창지투건설과 동북아 협력과의 연계”를 주제로 5인의 발표가 있었음.
- 채욱 원장은 제1세션에서 “동북아 경제 발전과 지역협력”을 주제로 한중일 FTA에 중점을 두어 발표하였음.

5. 연변대학 교수들과의 간담회

◎ 참석자

-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 김강일 원장,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이종림 부원장,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현동일 교수, KIEP 채욱 원장, 김부용 부연구위원

◎ 내용

-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면적은 4.3만 km²이고 인구는 220만 명이며, 그 중 조선족이 80만으로 전체 자치주 인구의 36.8%를 차지함.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연길시, 도문시, 돈화시, 룡정시, 훈춘시, 화룡시, 왕청현, 안도현의 6개 현급시와 2개의 현으로 구성됨. 주도는 연길시로 인구는 50만 명임.
- 2009년 11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 계획강요-창지

투를 개발개방선도구로」를 비준함으로써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는 국가 전략으로 승격하게 됨.

-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는 길림성 범위 내 장춘시의 부분지역, 길림시의 부분지역과 연변조선족자치주를 포함하는 지역임.
- 선도구의 총 면적은 7.3만km², 인구는 1,097만 명으로 각각 지린성 전체의 39.1%와 40.7%를 차지하고 경제규모는 성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두만강 지역 협력개발사업의 핵심지역임.
-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창지투 개발계획을 통해 새로운 경제도약을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동북아 미래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발전 잠재력이 아주 큰 지역임.
- 연변대학은 민족 특색이 있는 종합대학으로서 중국 “211 프로젝트” 중점 대학 중의 하나임. 1958년에 연변대학, 연변의학원, 연변농학원, 연변공학원 등 몇 개로 분리되었다가 1996년에 다시 연변대학으로 합병되었음.
- 경제관리학원, 법학원을 비롯한 16개의 학원과 동북아연구원, 조선-한국학 연구센터를 비롯한 12개의 연구기관이 있음.
- 연변대학은 북한과 한국의 여러 대학, 연구기관과 교류가 있으며, 향후 동북아 경제, 한-동북 3성 협력과 관련하여 KIEP과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기대함.